

다스코(주), 창사 첫 전환사채 200억 원 발행

미래신산업 박차... 대규모 자금 확보
수상 태양광·WBM 4차 신사업 투자
'건설 토탈'로 매출 5천억 비전 제시



한상원 회장

유가증권 상장회사인 건설자재 전문기업 다스코(주) (회장 한상원·사진)가 1일 적극적인 기업 인수·합병(M&A)을 위해 창사 이래 처음으로 국내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전환사채 200억 원을 발행하기로 했다고 1일 공시했다.

5년 만기로 발행되는 이번 전환사채의 표면이자율과 만기이자율은 각각 0%다. 전환가액은 주당 4,839원이다. 전환에 따라 발행될 주식은 보통주 413만 3,000주이며, 주식총수 대비 비율은 21%다. 사채 만기일은 2025년 9

월 3일이며, 전환가액은 4,839원이며 전환청구기간은 2021년 9월 3일부터 2025년 8월 3일까지다.

다스코(주)는 투자자금을 활용해 미래 지향적 신사업을 추진하고 새로운 사업 분야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확대하고자 창사 이래 처음으로 CB를 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한상원 회장은 올해 초 신년사에서 "창조와 혁신을 통한 성장"을 강조하면서 공격적인 경영을 선포했다.

한 회장은 "코로나19 이후 뉴 노멀 시대가 도래하고 있고, 전통 산업영역이

구조적으로 변화하는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의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회사의 주력 사업인 SOC사업(도로안전·방음시설·해외·토목), 건축자재사업(테크플레이트·단열제)

사업외에 다른 사업 영역에도 도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회장은 이어 "SOC, 건축자재, 에너지 등 3대 핵심사업과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분야·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이중 신사업 등에도 지속적인 투자와 M&A에 나서서 회사의 가치와 경쟁력을 극대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스코(주)는 지난해 수상 태양광 사업과 구조용선조립 용접철근(WBM) 사업에 새롭게 진출했으며 이와 관련한 영역으로 신규 투자를 검토 중이다.

다스코(주)는 창립 40주년이 되는 2023년 매출 5,000억 원 달성이라는 회사 비전을 제시했다.

다스코(주)는 우리나라 지리적 특수성을 감안해 향후 수상 태양광의 성장을 내다보고 지난해 자회사인 쏠에코(주)를 통해 수상 태양광 솔루션 전문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해 수상태양광 사업 진출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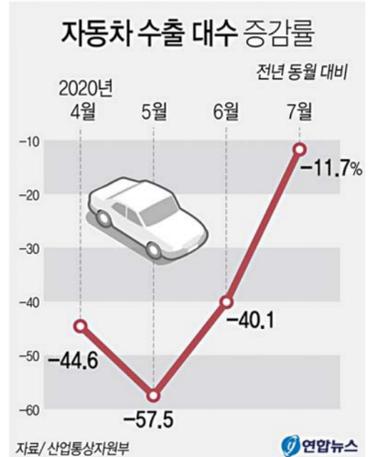
선언, 한국판 그린 뉴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올해는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며, 해외 시장 개척에도 참여해 태국 총부리에 1MW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군산 새만금산단에 공장을 설립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각광받고 있는 건설 관련 '엔택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WBM 사업은 공장에서 자동용접을 통해 제작된 격자 형태의 철근 구조체로 구조적(균열방지/품질향상)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설치 신속성과 취급 용이성으로 설치 시간을 크게 단축시켜 공사 비용 절감·공기 단축에 기여할 수 있어 주요 건설사로부터 다양한 사업 제안을 받고 있으며 다스코는 '건설 분야 '토탈 솔루션 프로바이더(Total Solution Provider) 기업'으로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미애 기자

그래픽 경제



자동차 수출 전년 동기대비 감소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자동차 수출이 4개월째 작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이어갔다.

다만 감소 폭이 2개월 연속으로 줄어들어 회복 조짐을 보이고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7월 자동차 산업 월간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 수출은 작년 7월보다 11.7% 줄어든 18만 1,362대를 기록했다.

자동차 수출은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수요 위축으로 지난 4월(-44.6%)부터 부진하기 시작해 5월에는 반토막(-57.5%)이 났다.

6월(-40.1%)과 7월(-11.7%)에도 하락세를 보였으나, 북미 내수판매가 증가세로 전환하고 유럽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감소 폭은 점차 주는 추세다.

2020 인구주택총조사 호남관리본부 출범

호남지방통계청은 1일 '2020 인구주택 및 농업인업 총조사' 수행을 위한 호남권 지역관리본부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오는 11월 1일부터 실시될 예정인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인터넷조사(PC, 모바일)와 전화조

사 등 비대면 조사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호석 호남통계청장은 "2020 총조사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내 지자체와 유기적으로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나라기자

박치영 (주)모아종합건설 회장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 참여

다음 캠페인 참여 주자로
한상원 (주)다스코 회장 추천

박치영 (주)모아종합건설 회장은 최근 코로나19 극복과 조기 종식을 응원하는 '스테이 스트롱(stay strong)' 캠페인에 참여했다.

박치영 회장의 이날 캠페인 참여는 정민식 하나은행 호남영업그룹장으로부터 릴레이 주자로 지목 받아 이뤄졌다.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은 올해 3월 외교부에서 시작한 코로나19 극복 공익 캠페인으로 기도하는 두 손에 비누거품이 더해져 철저한 개인위생관리로 코로나19와의 싸움을 극복하는 의미의 로고를 사용하고 있다. 글로벌 릴레이를 통해 위기 극복에 전 세계의 연대와 지지를 이끌어내는 취지로 시작된 캠페인이다.

박 회장은 "최근 다시 심각해진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예방을 위해



박치영 (주)모아종합건설 회장이 코로나19 극복과 조기 종식을 응원하는 '스테이 스트롱(stay strong)' 캠페인에 참여했다. / (주)모아종합건설 제공

우리 모두의 동참이 필요한 시기가"면서 "모아종합건설 모든 임직원들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이어 "코로나19 방역에

맞서 고군분투하는 의료진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 어린 감사와 격려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다음 캠페인 참여 주자로 한상원 (주)다스코 회장을 추천했다.

/서미애 기자

광주TP, 국제표준 부패방지시스템 인증

청렴 조직문화 정착
대국민서비스 강화



광주테크노파크(광주TP)는 1일 중회의실에서 한국표준협회로부터 국제표준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 37001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받았다. /광주TP 제공

광주테크노파크(광주TP)는 1일 중회의실에서 한국표준협회(KSA)로부터 국제표준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 37001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받았다.

광주TP는 올해 3월 김선민 원장 취임 이후 '청렴이 경쟁력이다'는 강력한 반부패 청렴의지를 바탕으로 반부패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국제표준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인 ISO37001 인증 절차에 나섰다. 5개월간의 준비 끝에 시스템 구축에 따른 제반 요구사항 충족 후 최종 심사를 통해 인증을 획득했다.

특히 조직내 운영중인 청렴실천 리더들을 통해 최근 5년간 전국 19개 TP에서 발생한 부패 사례 조사·분석을 통해 부패리스크를 평가하고, 위험도가 높은 리스크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을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했다.

또한 부패방지방범 및 관련규정 제정, 내부심사원 육성, 임직원 교육 등을 이행해 1단계 서류심사, 2단계 심층심사를 거쳐 최종 인증을 받게 됐다.

김선민 원장은 "광주TP의 모든 임직원들은 청렴·부패방지 문화정착을 위해 한국표준협회(KSA)로부터 ISO 37001 인증을 통해 청렴한 조직문화를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됐다"면서 "광주TP가 청렴조직 운영 의지에 대한 신뢰 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임직원들과 함께 청렴문화를 만들어가는 지속적인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ISO37001은 162개국이 참여하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2016년 제정한 반부패경영시스템 국제표준 규격으로 조직의 부패를 예방, 탐지 및 대응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부패방지제도 구축 여부, 위험 진단, 개선 활동 등에 대한 전반을 평가받아 인증이 결정된다. /박선욱 기자

CHARM HEALING SCALP CARE SOLUTION

탈모 포기하셨다구요? 불만족시 환불해드립니다

두피·탈모 케어 솔루션
모링가환 | 모링가샴푸 | 은갈사비

NAVER [참힐링 모링가 샴푸 검색하세요](#)

두피케어상담·체인점상담 1588-7438